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9호 [루계 제23251호] 주제99 (2010)년 10월 26일 (화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기념 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기념 군중대회가 2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당의领导 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조중 두 나라로세대혁명가들에 의하여 마련된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고 있는 시기에 뜻깊은 기념일을 맞이한 두 나라 인민들의 우의의 정이 대회장에 뜨겁게 흐르고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중국인민공화국 국기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참전 60돐》, 《1950-2010》이라는 글발이 나붙어 있었다.

대회장에는 《중국대표단의 우리 나라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위훈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 만세!》,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키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방문하고 있는 중국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로병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문예단, 중국공산당료녕성단동시위원회대표단 성원들, 주조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순님들이 초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가 주약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와 중국인민해방군부총참모장 상장 마효천동지, 총정치부부주임 상장 동세평동지, 중국인민지원군로병대표단단장인 중국인민해방군전공군사령원왕해동지, 주조중화인민공화국특명전권대사류홍재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전체 참가들은 로숙하고 세련된領導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 이끄시고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립동지,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회 위원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김정각동지, 문경덕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국렬동지와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로동당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 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0월 25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고위군사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전공군사령원왕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로병대표단과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선전부부장려국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문예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애우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총정치국제1부부장인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대표단들을 접견하시였다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 우리나라주체중화인민공화국특명전권대사류홍재동지와 대사관공식외교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팍백웅부주석은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내온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주석이며

중국인민해방군로병대표단과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선전부부장려국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문예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애우들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중국인민지원군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호금도

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의지도간부들과 형제적

중국인민에게 인사를 전하심

다음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접견을 마치신 후 손님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대표단들을 접견하시였다



1면에 서계속

만찬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외무성 제1부상 김계판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만찬회는 우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정치지도반



우리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활력 있게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군중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의 보고

동지들 !
오늘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대표자와 당창건 65돐을 통하여 선군조선의 일심 단결의 위력을 힘 있게 떨친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워가며 일으켜나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강화발전되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이름으로 중국인민과 중국인민지원군로 병들, 중국인민해방군 장병들에 꾸러진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 장병들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암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백색운동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조선침략전쟁을 반대하여 한전호수에서 어깨걸고 싸운 때로부터 어느덧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 60돐을 맞으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세운 영웅적 위훈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주제 39(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암살하고 세계제패야당을 실현하기 위하여 침략적인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미국은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이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강토를 사수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었습니다.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 민족으로 맷였느냐 하는 춘업한 시기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뒤에 굳게 풍적 조국수호의 성전에 산악같이 일떠섰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100여년의 침략사를 가진 미제와 그에 추종해 나선 제국주의 학살세력의 대병력을 맞서 뛰어없이 간고한 싸움을 벌리고 있던 시기인 주제 39(1950)년 10월 25일 중국당과 정부는 우리 인민이 겪고있는 시련을 차기 일처럼 여기며 『항미원조보위국』의 기치 밑에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지원군을 무어 조선

전선에 파견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갖 창건된 그 어려운 조선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선에 참전한 것은 반제 반통제의 길에서 맺어진 혁명적 리파의 승리이며 숭고한 혐오심으로서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하여 청춘을 바쳤던 우리 인민의 공동의 원우를 탐송하기 위해 끝까지

뛰워나갈것이라고 한 모택 동주석의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한전호수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운동합니다.

조선전선에 달려나온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원우를 탐송하기 위해 끝까지

뛰워나갈것이라고 한 모택 동주석의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한전호수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운동합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오래전부터 서로 이에 걸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과감히 싸우는 파정에 전투적 우의와 친선의 뉴대로 굳게 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동북평원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일

승리의 향도자, 로숙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주대되신 것과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우간다, 이란에서는 좌당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스웨리에에서는 강연회가, 청소교에서는 영화감상회가 5일과 6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쟁아울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조선로동당의 승리와 영광의 6·5성장을 사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장들은 인도네시아선봉당장 중앙지도부 사회, 우간다 전국항생운동 캄팔라시위원회, 이란조선친선 마그설농목장, 스웨리에 주체사상연구소조직, 체스페리원도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상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풍태』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선봉당장 중앙지도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각하께서 당총비서로 높이 주대되신 것은 그이에 대한 전제 조선로동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우리는

이를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

김정일 각하께서는 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네원대로 조선로동당을 평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함께 영을 같이 하는 전정한 어머니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의 6·5성장을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의

역사이다.

인도네시아선봉당장 중앙지도부 사회 총서기는 김정일각하는

현시기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

도조선로동당을 그 어떤 도전

과 시련에도 끄떡하지 않고

강철의 힘으로 건설하신

로 속하고 세련된 령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부강번영에 쟁아울리신 그이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우간다전국항생운동 캄팔라시

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각하의

령도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또다시 높이 주대되신

것은 그이를 당파 혁명의 수위에

지도록 치르고 모든 분야에 철

저히 구현하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

였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경제적 난관속

에서도 무상치료, 무료교육 등

인민적 지원들을 변함없이 실시

하고자 했다.

김정일총비서는 당총비서로 높이 주대되신 것은 그이에 대한

전제 조선로동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의 표시

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우리는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각하께서 당총비서로 높이 주대되신 것은 그이에 대한

전제 조선로동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의 표시

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우리는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경공업

부문 일군들이 인민들에게 세

세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창조적극

성과에 국적현신성을 발휘하며

질 좋은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

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

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경공업

부문 일군들이 인민들에게 세

세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창조적극

성과에 국적현신성을 발휘하며

질 좋은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

하였다.

미국의 봉쇄책 통 단죄

꾸바니성련맹 비서국 비서

페 씨 헤트난데스가 21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봉

쇄책 통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이 수십년동안 꾸

바를 반대하는 경제, 상업,

금융통제 조치를 실시하여 많

은 피해를 준데 대해 규탄하

였다.

미국방성청사에 대한 총격사건 발생

미국방성청사에 대한 총격

사건이 19일에 발생하

였다.

경찰당국은 이날 새벽 5시

경에 청사에 사건이 가해져

졌다.

잠수함 증강책 동

일본이 세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해상무력을 증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일본 『도쿄신보』는

방위성이 해상 『자위대』의 잠

수함을 현재의 16척으로부터

17척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

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

역나라들의 용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사기자

되고 6명의 밀수업자가 체포

되었다.

지난 9월 말 오스트랄리아의

스디니시에서에서도 마약밀수 및

밀래 행위를 일삼던 그루빠가

적발되어 많은 양의 카니비스

가 물수되고 8명의 마약판련

범자들이 붙잡혔다.

최근에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오스트랄리아의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미약관련범죄 건수가

7.6% 증대되었다.

마약범과는 가장 성행하는

나라는 태국이 미국이다.

이에 대해 꾸바의 브랜드

라미나토신은 지난해 미국에

2명의 자녀를 입양하여

나라에 입양한 그루빠가

되었다.

한편 이 날 일본의 히로시마

시에서는 32살 난 너성이

2명의 자녀 어린 자식의 목

을 훔쳐 죽인 범이 밖에서

사회에 경악을 자아냈다.

이보다 앞서 2일 오후까

에서 15살 난 학생이 날의 짐

에 불을 질려 3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전에는 그에게

자기 딸을 훔쳐 무참히 살해

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마약밀

수 및 탐용행위는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얼마전 브리에에 미애

에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에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